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텍스트가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Uses of Text
including Teachers' Travel Experiences
on Primary Students' Academic Interest
in Geography Lessons**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신혜선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텍스트가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류재명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신혜선

신혜선의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7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국문초록

2015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동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여행 사진, 여행기, 여행 설계’와 같은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행 관련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 소득 수준과 여가 생활 만족도 향상에 따른 여행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고, 여행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지리 학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정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여행 경험이 없는 낮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하기가 어렵다. 이 때, 내러티브의 소재로서, 교사의 여행기를 재구성한 텍스트 및 사진 자료는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감정 이입을 통해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기대하게 하는 등 현실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적 지리와 공적 지리를 관련지어 새로운 경관과 지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리 수업을 하는 초등 교사에게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교수·학습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경험은 큰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여행의 직·간접적 경험은 학생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고 실생활과 지리 학습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초등 지리 학습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적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사적지리 텍스트 및 사진 자료가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와 지역 선호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립 초등학교 2곳의 6학년 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 1에서는 공적 지리 텍스트와 사적 지리 텍스트, 실험 2에서는 사적 지리 풍경 사진 텍스트와 사적 지리 인물 사진 텍스트, 이렇게 각 실험에서 집단 내 변인으로 2가지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다. 그리고 수행 과제로서 학생들은 러시아 지역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학습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를 측정하는 7점 리커트 척도의 객관식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속 지식 전달 중심의 공적 지리 설명적 텍스트일지라도, 교사의 직접적인 여행 경험에서 비롯한 예를 드는 것만으로도 공적 지리를 사적 지리와 관련지어 적극적인 감정 이입을 하게 함으로써 학습 흥미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자로만 구성된 텍스트에 비해 사진 자료를 삽입하여 글과 사진이 함께 제공되었을 때, 학습 흥미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선호도 비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자연을 촬영한 풍경 사진에 비해, 인물이 포착된 인물 사진이 학습 흥미 및 지역 선호도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특히, 사진에 포함된 인물이 교사, 친구 등 학습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연구 과정은 교사의 여행 경험이 반영된 사적 지리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사들이 여행 연수를 통해 수집하고 개발할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방안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사와 학생들의 여행 경험 빈도가 늘어나면서 여행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절실한 현 시점에, 지속 가능한 지리 교육 활동 실천을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여행, 교사의 여행 경험, 사적 지리, 텍스트, 교수·학습자료, 학습 흥미
학 번 : 2015-21585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절차	5
II. 이론적 배경	8
1. 여행의 지리 교육적 의미 고찰	8
가. 여행의 지리 교육적 가치	8
나. 초등 지리교육에서의 여행의 교육적 함의	12
2. 지리 학습 흥미 향상을 위한 텍스트의 역할	14
가. 학습 흥미 이론	14
나. 지리 학습 자료로서 텍스트의 효과성	17
다.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텍스트의 구성	22
III. 실험 1 : 교사 여행기체 텍스트의 효과성 검증	24
1. 방법	24
2. 결과	34
3. 논의	39
IV. 실험 2 : 교사 인물사진-텍스트의 효과성 검증	40
1. 방법	40
2. 결과	47
3. 논의	52
V. 결 론	53
1. 요약	53
2. 연구의 한계	54
3. 교육적 시사점 및 제언	56

참고문헌	58
부록	64
Abstract	70

표 목 차

<표 II-1> 여행 관련 주요 용어	9
<표 II-2> 현대 이론가들의 흥미	15
<표 II-3> 지리 교육용 텍스트 자료의 유형	18
<표 II-4> 지리 교육용 사진 자료의 유형	20
<표 III-1> 실험 1의 검사 도구의 구분	27
<표 III-2> 실험 1의 상황적 흥미도 검사 문항	30
<표 III-3> 실험 1의 지역 선호도 검사 문항	30
<표 III-4> 실험 1의 사전 집단 간 동질성 검사 문항	31
<표 III-5> 실험 1의 사전 검사 기술 통계치	35
<표 III-6> 실험 1의 집단 간 개인적 흥미도 차이 비교 ..	36
<표 III-7> 실험 1의 집단 정규성 검정	37
<표 III-8> 실험 1의 상황적 흥미에 대한 점수 비교	38
<표 III-9> 실험 1의 러시아 지역 선호도에 대한 점수 비교 ...	38
<표 IV-1> 실험 2의 검사 도구의 구분	43
<표 IV-2> 실험 2의 사전 검사 기술 통계치	48
<표 IV-3> 실험 2의 집단 간 개인적 흥미도 차이 비교 ..	49
<표 IV-4> 실험 2의 집단 정규성 검정	50
<표 IV-5> 실험 2의 상황적 흥미에 대한 점수 비교	51
<표 IV-6> 실험 2의 러시아 지역 선호도에 대한 점수 비교 ...	51

그림 목 차

[그림 I-1] 현장 실험 연구 절차	7
[그림 III-1] 실험 1의 교과서 텍스트 추출 근거	25
[그림 IV-1] 실험 2의 교과서 텍스트 추출 근거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물질적 풍요를 뛰어넘는 삶의 질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수준과 여가 시간의 만족도가 높아진 만큼 다양하고 능동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행에 관한 기능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여행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5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동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¹⁾, ‘여행 사진, 여행기, 여행 설계’와 같은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행 관련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여행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고, 여행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행지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한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하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교육 현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매년 교수·학습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자율 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의 보고가 증대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글로벌 사회 경험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적 지원 규모 또한, 매년 예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1)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초등학생의 성장 발달 정도와 사회·문화적 경험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학습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학습에 대한 내재적 가치인 ‘흥미’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있다²⁾.

세계 지리 학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정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여행 경험이 없는 낮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하기가 어렵다³⁾. 또한, 교과서의 지식 전달 위주의 설명적 텍스트와 학생과의 심리적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그림·사진 자료에 의존하는 교실 수업은 학생들에게 학습 흥미와 동기를 고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교사의 여행 경험을 반영한 이야기 텍스트 및 사진 자료는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감정 이입을 통해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기대하게 하는 등 현실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적 지리와 공적 지리를 관련지어 새로운 경관과 지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Downs, 1994; Sauer, 1956; 조철기, 2011). 또한,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인 교사에게도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⁴⁾의 계기가 될 수 있다(김학회, 2006; 조수진, 2017).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여행의 직·간접적 경험은 학생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고 실생활과 지리 학습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지리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지만, 이를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초등 지리 학습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적 연

2) 연합뉴스, 2016년 2월 9일자, “올해 해외파견 교원 대폭 늘린다…작년의 15배 300명”

3) 광금주 외, 2006, 「아동발달심리학」, 박학사, 210-211.

4) Mezirow(1991)는 기존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되는 삶의 경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 스스로의 관점을 조정·변화하는 과정 즉, 전환학습이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성인 발달(adult development)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한다. 이는 초등교사가 지리교육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교육 내용으로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줌으로써 초등지리교육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조수진, 2017).

구는 드물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수체제는 여전히 '학급담임제'로 담임교사 한 사람이 6개 학년, 10개 이상의 전 교과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초등 교사가 여행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고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과 '여행'이라는 두 개의 주제어를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물을 검색한 결과, 초등 교사나 초등학생에게 있어 여행 경험의 지리 교육적 의미나 가치를 탐색해 본 연구는 일부 있었지만, 중등학교급에서와 같이 실제적인 교수·학습 차원에서 여행 지리 관련 교육 정보 디자인 방안을 탐색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최근 연구(조수진, 2017)에 의하면, 초등 사회과에서는 '여행'이라는 주제어보다 '현장체험학습'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분야에서 관련 논의를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낮선 공간으로의 이동'이라는 여행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중등 지리교육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여행지에서 수집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여 제공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배움이 즐거운 지리 수업'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교사나 학생의 여행 경험 빈도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 초등학교 지리 수업의 실제적 맥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리 교육 활동 실천을 위한 한 가지 긍정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초등 지리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보편적으로 어떤 교육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양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실천적 교육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여행’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고, 여행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 최근의 사회과 교육 트렌드를 따라, 교사의 여행 경험을 반영한 텍스트 자료가 수업 활동 중 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연구’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사의 여행 경험이 반영된 사적 지리 여행기체 텍스트는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와 지역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교사가 여행지에서 직접 찍거나 찍힌 사진이 포함된 이중부호텍스트는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와 지역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교사의 여행 경험이 반영된 사적 지리 텍스트 및 사진 자료가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와 지역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험 연구 방법을 번갈아가며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여행 지리의 교육적 가치, 공식화된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과서의 성격과 특성, 지리 교육에서 텍스트 활용의 실제,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른 학습 양식과 흥미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 가설의 논리적 정당성을 상기 기존 연구의 토대 위에서 검토하였다.

현장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다 공정한 실험 도구 제작을 위해, ‘2017 교육부 현장답사단⁵⁾’ 국외팀 부문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답사 코스 및 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응모하여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 해외 답사 과정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4명의 초등 교사가 한 팀을 결성하여 2017년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참여하고 실행하였다. 특히, 지리 영역의 답사 내용은 6학년 담임교사 2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실험 도구 제작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수집 및 개발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사전에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지리적 정보를 여행 과정을 실제 현지에서 직접 적용하고 체험한 견문 및 감상의 내용을 기록 및 녹취하였으며, 교과서 속 풍경 사진과 유사한 현지 장소를 배경으로 교사의 모습이 포착되도록 직접 인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가 여행지에서 직접 수집하고 개발한 사적 지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답사 활동에 참여한 교사 2명의 소속 공립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실험 참여자는 해당 교사와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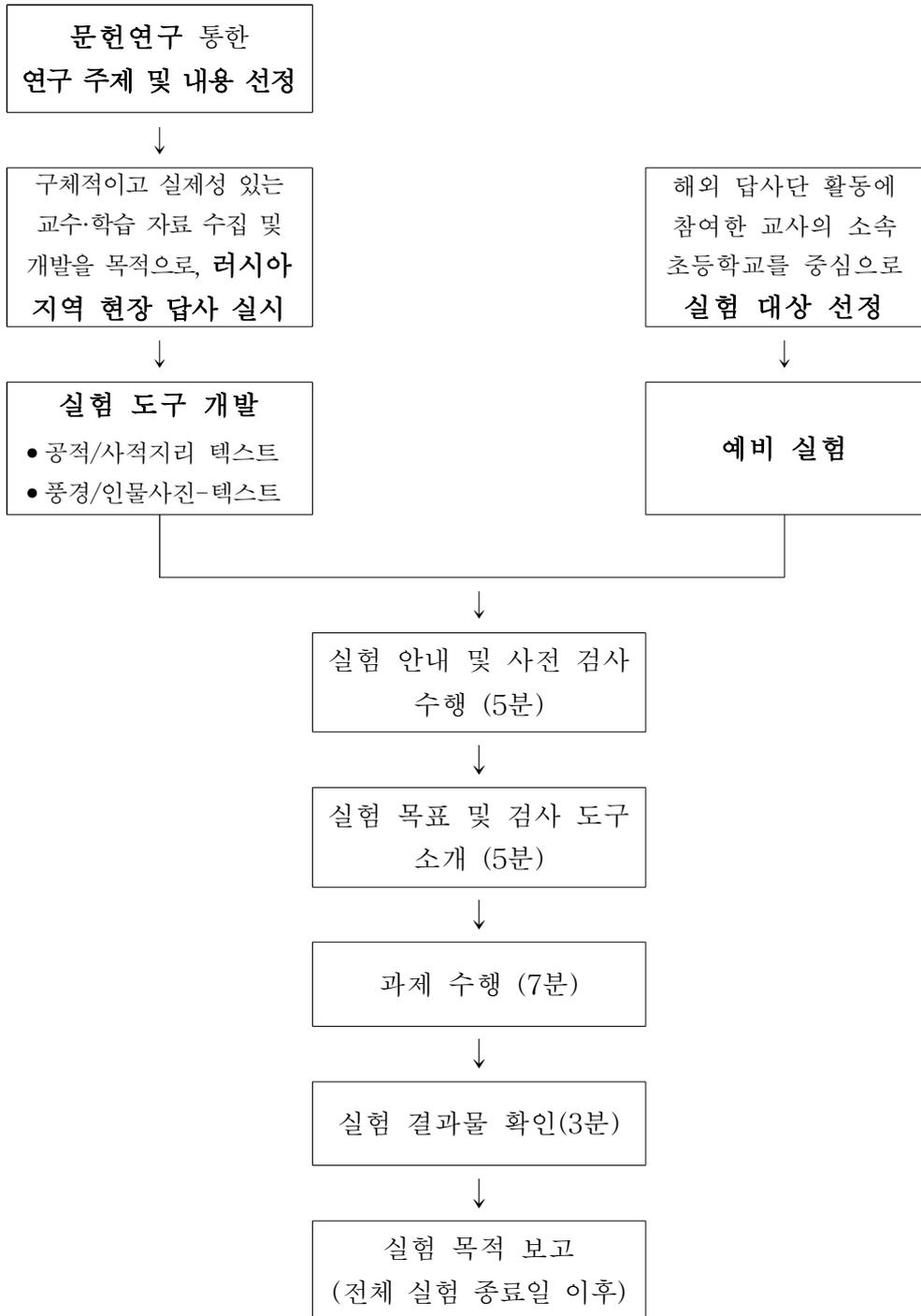
5) 행정신문, 2017년 8월 4일자, “교육과정연계 역사현장답사단’ 운영”

소 사회 수업을 함께하고 있거나 이전 학년도에 함께했던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장 실험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으로 통제 집단과 처치 집단을 나눈 후, 초등 지리 교육용 텍스트에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교실 수업에서 활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과서로 대표되는, 인쇄 기반의 ‘텍스트 자료’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교과서 속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실험 과정을 크게 둘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실험 1은 교과서의 설명적 텍스트에 비해 교사의 사적 지리 여행기체 텍스트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실험 2는 교과서의 풍경 사진이 동시에 제공된 사적 지리 여행기체 텍스트(이하 풍경 사진-텍스트)에 비해, 교사가 여행지에서 직접 찍거나 찍힌 인물 사진이 포함된 사적 지리 텍스트(이하 인물 사진-텍스트)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인 2017년 10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전 검사지 및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실험 도구의 부족한 점은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현직 교사 3인과 지리교육 전공 박사 2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실제 본 실험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지역이 다른 2개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실험 1과 2의 4개의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다. 학생들은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텍스트를 읽은 뒤, 내적 반응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실험 결과는 MS Office Excel 2013으로 정리하였으며, SPSS 2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1] 현장 실험 연구 절차

II. 이론적 배경

1. 여행의 지리 교육적 의미 고찰

가. 여행의 지리 교육적 가치

여행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자기 거주지를 떠나 객지에 나다니는 일, 다른 고장이나 다른 나라에 가는 일 등을 말한다⁶⁾. 즉, 새로운 장소나 지역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여행의 기본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여행을 하는 이유에는 오락, 투어, 방학을 즐기는 것, 연구를 위한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함, 사람을 방문하는 것, 자원봉사,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이민, 종교적인 이유, 미션 여행, 사업차 방문 등 매우 다양하다⁷⁾. 김학희(2004)에 의하면, 여행의 목적을 사업, 친구·친지 방문, 기타 개인적인 일, 즐거움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여행의 유사 개념으로 관광, 투어, 레저, 답사와 같은 용어들이 명확한 구분 기준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특히, ‘여행’과 ‘관광’에 대한 개념 혼동은 우리 사회 전반에 적잖은 편견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의 경우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과 같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활용함으로써 더 공식적이고 상위 개념의 용어라는 인상을 주는 반면, 여행은 ‘배낭여행’, ‘가족여행’ 등과 같이 사적인 세계와 연결시

6) 네이버 국어사전, 여행의 사전적 정의(출처: <https://ko.dict.naver.com/detail.nhn?docid=26705100>)

7) 위키백과, 여행의 목적(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D%96%89](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 D%96%89))

켜 활용함으로써,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사치성 여가 활동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행의 기본적 개념은 ‘이동’으로, 다양한 목적의 ‘비일상적인’ 움직임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음 <표 II-1>에서 보여 지는 대다수의 용어는 여행에 포함시키거나 연계시킬 수 있으며, 여행이 가진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가치를 고려해볼 때, 이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김학희, 2006; 김광근 외, 2013).

<표 II-1> 여행 관련 주요 용어

용어	정의
Excursion	당일의 짧은 여행
Expedition	전쟁, 탐험, 학술 연구 등 일정한 목적을 가진 여행
Exploration	탐사, 답사, 탐험여행
Journey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육로 여행, 여정
Sightseeing	(명승지) 구경, 관광, 관람
Tour	시찰 따위를 위한 여행
Travel	나라나 지방 따위를 여행
Trip	일반적으로 짧은 여행
Voyage	장거리의 선박 여행, 항공 여행

출처: 김광근 외(2013)를 재정리.

또한, 이용규(2016)는 여행은 고통, 고생, 고민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적 본질과 가깝다고 한다면, 관광은 즐거움과 재미, 쾌(快)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논리로 이루어진 상품화와 산업적 본질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행이 관광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 보았다.

여행은 지리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서, 지리학은 오랜 세월 동안 지리학의 중요하면서도 특징적인 자료·정보 획득 방법인 답사, 탐사, 견문, 현지 조사 등 일종의 여행을 통해서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이븐 바투타, 마르코 폴로, 알렉산드르 폰 훔볼트 등의 여행기 및 답사가 지리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이동민, 2014; 김학회, 2006; Downs, 1994). 한편, 과거에는 여행이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치 활동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산업·소비·여가 활동의 효율성 증대, 주 5일 근무·수업제와 주 52시간 근로제⁸⁾에 따른 여가 시간 확대 및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모든 사회 계층이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 되었다(Thomas and Thomas, 2005; Tolbin, 1974). 또한, 여행에 관한 기능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여행지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한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하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교육 현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여행에 관한 교육적인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교육계 전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여행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에 반응하고, 여행을 통한 지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예. 김학회, 2006; 남상준·조경아, 2005)의 논리가 인정되어, 실제로 2015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속에서 ‘여행’ 관련 개념을 추출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동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여행 사진, 여행기, 여행 설계’와 같은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행 관련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선택과목으로서 ‘여행 지리’가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⁹⁾. 이에 따라, 세계 지리 수업에서 여행을 하나의 테마로 하여 수업을

8) 연합뉴스, 2018년 7월 8일자,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 시대’...여행 바람 솔솔”

9) 교육부(2015)는 여행 지리는 현대인의 삶과 여가 생활 속에서 갈수록 그 의미가 커지고 있는 ‘여행’이라는 주제 및 형식을 지리 교과에 결합하고 확장한 것으로서,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직·간접적 여행자가 될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 우리나라, 다른 문화권, 전 지구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하고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조철기(2011)는 내러티브는 지리 수업에 중요한 소재를 제공하여 지리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더욱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지리교육의 다양한 내재적 목적을 성취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기와 같은 내러티브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정아·남상준(2005)은 내러티브로서 여행자의 이야기가 새로운 경관 및 지리적 맥락과 어우러지면서 지리적 호기심과 흥미, 상상력을 유발하고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안병윤(2011)은 세계 지리 수업에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행 이야기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 선호도와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텍스트를 통해 유발되는 흥미’와 ‘지리적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화자가 여행자로 텍스트 속에 등장하여 화자의 주관적 감상을 서사적으로 서술한 ‘일기체 텍스트’의 학습자 선호도와 학습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행의 직·간접적 경험은 학생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고 실생활과 지리 학습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지만, 이를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초등 지리 학습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적 연구는 부족하다. ‘초등’과 ‘여행’이라는 두 개의 주제어를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물을 검색한 결과, 초등 교사나 초등학생에게 있어 여행 경험의 지리교육적 의미나 가치를 탐색해 본 연구는 일부 있었지만, 중등학교급에서와 같이, 실제적인 교수·학습 차원에서 여행 경험을 반영한 교수·학습 자료 (재)구성 전략 및 활용 방안 등을 탐색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조수진(2017) 또한, 초등 사회과에서는 ‘여행’이라는 주제어보다 ‘현장체험학습’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분야에서 관련 논의를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낮선 공간으로의 이동’이라는 여행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중등 지리교육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있는지를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초등 지리 교육에서의 여행의 교육적 함의

피아제의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르면, 세계 지리 학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자기 정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¹⁰⁾, 직접적인 여행 경험이 없는 낯선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교과서의 지식 전달 위주의 설명적 텍스트와 학생과의 심리적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그림이나 사진 자료에 의존하는 교실 수업은 학생들에게 학습 흥미와 동기를 고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권정화(1997)는 학생들의 사적 지리와 공적 지리 간의 순환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사적 지리로부터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한다¹¹⁾. 또한, 김정아(2005)는 지리 교육 내용은 아동들의 일상생활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지리적인 의미를 추출해 낸 것이어야 하며, 학교 지리는 아동들의 사적 지리와 관련지어 제공될 때 교육적 방편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지리교육 내용은 사적 지리와 공적 지리를 관련짓는 것을 주요 목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구성에 ‘여행기, 여행 사진’과 같은 여행 요소의 도입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세계와 자신의 생활 세

10) 김경미(1999)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인지 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과도기 상에 있다고 보았다.

11) 공적 지리에 대하여 권정화(2015)는 다수가 공유하여 제도적으로 공인받은 지리 지식을 공적 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학자들의 지리인식 외에도 정부에 의한 지리 인식 등이 포함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도 그 일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류재명(2002)은 사적 지리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지리로서 설명하고 있으며, 권정화(2015)는 사적 지리를 일상생활의 경험 양식으로 존재하는 지리로서, 개인의 주관적 지리 인식과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지리 지식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계를 따로 떨어진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교과 지식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여행기’는 대표적인 사적 지리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효과성은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긍정적으로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조철기(2011)는 지역 지리 수업에서 다른 나라 또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을 학습할 경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사가 그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새롭고 낯선 지역을 접하게 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장소에 관한 교사의 이야기는 물론, 동료 학생들의 경험적인 이야기들에 더 몰입하게 되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리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손유정·남상준(2009)은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 처해있는 공간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학생의 정체성과 삶이 만들어지고 바뀌어가는 공간이며, 학생들은 ‘자기 내러티브(self-narrative)’를 통하여 그 장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여행기를 통한 여행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사적 지리와 공적 지리를 관련지어 새롭고 낯선 지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행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행자는 여행지에서 어떤 여행 경험을 하여야 하는가? 우선, 사전에 실린 경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¹²⁾. 첫째,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보는 것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둘째,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철학 용어를 일컫는다. 따라서, ‘여행 경험’이란 교사나 학생이 실제 여행을 통해

12) 네이버 국어사전, 경험의 정의(출처: <https://ko.dict.naver.com/detail.nhn?docid=2338200>)

여행지에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 또는 거기에서 보고 들으며 얻은 살아있는 지식이나 기능으로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행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행지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자료가 분석되고 기술되어 여행자가 경험하는 것의 의미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현상학적인 관점¹³⁾에서 Van Manen(1990)은, 연구자의 경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창의적이고 견고하게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능수능란한 질문과 가차 없는 답변 추구, 적극적인 관찰, 그리고 정확한 회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를 서로 조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고, 그 결과들을 선례와 연결해서 인과 관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owenthal(1961)은 각 개인의 경험, 학습, 상상은 필연적으로 경험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사적 지리의 주관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었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일상 세계와 연계됨을 강조하였다.

2. 지리 학습 흥미 향상을 위한 텍스트의 역할

가. 학습 흥미 이론

학습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지능과 적성 등의 능력 구인이나 교수·학습 방법이라기보다는 학생의 학습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흥미는 일종의 내적 동기로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idi *et al.*, 2004:89-115).

13) 현상학은 살아 있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며, 대상자의 실재에 접촉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현상학(phenomenology)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증진으로 명상적인 사고를 기초로 행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Omery, 1983).

학습에 대한 내재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 과정 자체를 배움이 ‘즐거움’ 과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흥미는 개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 주제에 대한 탐색 활동을 할 때, 긍정적인 효과성을 보이기 때문이다(윤미선·김성일, 2003).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여행지에서 수집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배움이 즐거운 지리 수업’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학습한 내용을 행동 실천으로 옮겨 지속하고자 하는지의 동기적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표 II-2> 현대이론가들의 흥미

유형	세부요소	내용
개인적 흥미	감정-관련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이나 활동 자체와 관련된 감정을 의미하는 것 • 즐거움, 참여, 몰입 등에 관한 것
	가치-관련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개인적 의미성이나 중요성에 관련함
상황적 흥미	인지적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정보와 사전 지식, 구절 안에서 내용의 불확실성, 사후 해결가능성 혹은 텍스트의 일관성 요인에 의해 결정됨
	정서적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적인 각성 효과나 직접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야기되는 것.

출처: 진경아(2012)

위의 <표 II-2>에서 보여 지듯이, 일반적으로 흥미는 ‘개인적 흥미(personal interests)’와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s)’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흥미는 특정 주제나 활동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의해 유발되며, 점진적이고 지식적이고 개인차가 큰 편이다. 개인적 흥미가 높으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찾으려고 시도하며, 기존 지식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학습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반면, 상황적 흥미는 교실 상황에서 자극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발된 주의 집중과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고 있다(Hidi, 1990; Hidi and Baird, 1986). 이 차원은 자극과의 동일시, 상황 자극에 대해 새로움, 놀람, 환상, 추론 등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Anderson *et al.*, 1979). 또한, 개인차가 적고 과제에 대한 가치와 관련이 거의 없다(소연희, 2005).

학습 활동이나 학습 내용을 흥미롭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여 점차 개인적 흥미로 발전시켜야 한다. Schiefele(1991)에 의하면,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의 발생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이 교육적 효과에 있어 개인적 흥미보다는 상황적 흥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상황적 흥미는 개인적 흥미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가 속해 있는 학습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므로 학습 내용에 대한 상황적 흥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에게 특정 학습 내용을 학습하여야 하는 이유와 학습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맥락적, 상황적 관련성이 제공되어야 한다(김성일, 2003).

그러나, 실제 사회 교과서의 지리 영역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며 학생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추상적인 내용이 허다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학습 내용이 학생 자신의 삶과 관련성과 유용성이 높아야 지식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면 상황적 흥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습 발달에 따른 관심과 지식수준에 적합하도록 학습 내용과 과제를 구성하고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지리 학습 자료로서 텍스트의 효과성

21세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수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의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에 의존한 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¹⁴⁾. 교과서는 인쇄 기반의 교수·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그림,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적으로 CD-ROM을 통해 소리와 영상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폭넓게 활용되는 것은 ‘텍스트’이다(Lambert and Balderstone, 2010). 조철기(2011) 또한, 지리 교과서도 여타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진리 또는 실재에 기반하여 설명을 중시하는 소위 객관적인 지리 서술을 지향하여 설명적 텍스트 양식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고 하였다.

세계를 비롯한 외부의 공간은 언어에 의해 체현되고 내부화되기 때문에(Shepard, 1984), 교과서 속 텍스트 자료에 의한 언어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낯선 지역과의 거리감을 좁혀줄 뿐만 아니라(Davis and Palmer, 1992), 가르치고자 하는 공적 지리 개념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제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Wixson, 1991). 하지만, 교과서 속 텍스트 자료가 가진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Sewall(1988)은 대부분 교과서의 문체는 무감동하고 개성이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Goodman(1988)은 교과서의 짧은 문장들과 제한된 어휘들은

14) 사회과 교사들은 상당히 교과서에 의존한 수업을 한다. 그들은 교과서에 맞춰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시간의 상당 부분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소비한다. 교사들은 배워야 할 교과서 페이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외우도록 한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교과서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단원별 교과서 내용에 대해 시험을 보게 한다(Schug *et al.*, 1997:97).

결과적으로 재미가 없고 흥미가 떨어지는 독서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최근 중등지리교육에서 선행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효과적인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텍스트 자료의 (재)구성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통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3인칭의 설명식 서술로 기술된 텍스트(expository text)에 비해, 이를 1, 2인칭으로 바꾸어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사적 지리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학습 효과 향상에 효과적이다.

특히, 안병윤(2011)은 <표 II-3>과 같이 텍스트 유형을 구분하고, 여행 경험을 접목한 사적 지리 자료로서 고등학생의 세계 지리 학습에 적합한 ‘여행 이야기 텍스트’를 새롭게 개발하고 적용하여, 이는 학습자의 선호도와 학습 효과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표 II-3> 지리교육용 텍스트 자료의 유형

구분	텍스트 명칭		특징
1	설명적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된 글
2	개인화된 텍스트	안내기체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나열됨 여행 체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함 화자는 내레이터 역할에 한정됨 여정이 서사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음 여행자의 주관적 감상이 서술되지 않음
		일기체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자는 여행자로 텍스트 속에 등장함 여정이 서사적으로 서술됨 화자의 주관적 감상이 서술됨
3	삽화(사진) 텍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적 텍스트와 함께 삽화나 그림이 함께 제공되는 텍스트

출처: 안병윤(2011)

둘째, 지리 교육에서 삽화 자료¹⁵⁾는 관련 텍스트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사전 지식과의 연결을 강화해 학습에 유용하다.

유덕근(2010)은 이미지는 상황과 맥락을 구체화하는 정보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틀 안에 이미지가 적절한 수준과 방식으로 제시되면 학습자는 이미지 정보를 통해 상황 및 맥락과 관련된 마음속 모형을 보다 쉽게 활성화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복원과 추론 과정으로도 텍스트의 응집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R. Horn(1998)에 의하면, 기존 텍스트에서 단어와 이미지를 분리시켰던 것에 반해, 단어와 이미지의 밀접한 결합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는 그림(figure)으로 언급되었고 그것이 논의되는 페이지에 실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현재는 단어와 이미지들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고 점점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텍스트의 구성에 있어서 이미지의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용 텍스트에 사진이나 삽화, 표, 지도, 그래프 등 그래픽을 삽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 동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끌며 텍스트 이해를 돕는다(Levie & Lentz, 1982). 그 중 ‘사진’은 텍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사진과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선별하여 활용하도록 사진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Hartley, 1987; Fleming & Levie, 1993). 여러 사진 중에서도 드라마적 요소가 있는 즉 내러티브를 찾을 수 있는 사진이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15) 일반적으로 삽화는 사진, 그림, 도해, 만화, 도표, 등을 포함하여 말하는데, 특히, 한국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것은 ‘사진’이었다.

데 효과적이며(D.Berlyn, 1966),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보다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특히 사진에 포함된 인물이 교사, 친구 등 학습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학생들은 보다 더 관심을 가진다(Keller & Suzuki, 1988; Fleming & Levie, 1996). 요컨대, 사진에 사람이 등장하고 내러티브적 요소를 찾을 수 있을 때 감정적 어필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교과서에 활용되는 각 유형의 사진 자료가 담고 있는 지리적 정보와 학습 자료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지리교육용 사진 자료의 유형

구분	명칭		특징
1	자연 지리	풍경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풍경을 촬영한 사진
2	인문 지리	인물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을 촬영한 사진 인물 탐구에 대한 충분한 캡션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안내해주는 구성이 필요함
		사건 상황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자료 속의 인물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 있는 특정 순간의 사건이나 상황 장면을 포착하여 제시하는 것 인간 활동에 대한 장황한 언어(문자)의 서술이 없어도, 생활상이나 활동 내용을 한 장면의 자료 속에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비문자 형태의 자료 인물 사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인물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음
3		사물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활동의 결과 발생한 사물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장소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적인 풍경을 촬영한 사진. 즉, 도시나 건물 등을 포함함

출처: 구혜영(2015)

셋째, 현 교과서의 대부분은 일종의 이중부호자료(dual coding material)인 ‘사진-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학습 효과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중부호자료(dual coding material)는 텍스트와 그림, 사진 등과 같이 언어적·비언어적 유형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Paivio, 1991). 일반적으로 삽화 자료는 관련 텍스트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사전 지식과의 연결을 강화해 학습에 유용하다고 평가된다(Peeck, 1993; Purnel and Solman, 1991).

하지만, 텍스트와 삽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자료에 비해, 글 혹은 그림이 각각이 순수하게 한 가지 자료로만 제공될 때가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Schnotz and Bannert(2003)는 하이퍼 텍스트 그룹과 하이퍼 미디어 그룹의 학습을 비교해 보고 그래픽을 표현하는 것이 지식 습득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선미 외(2012)는 텍스트만 제시된 자료가 그림만 제시된 자료에 비해서 기억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학습 효과가 높으며, 학생들의 사전 지식수준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 자료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텍스트만 제시된 학습 자료가 학생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속 텍스트 자료의 유형에 따라, 실험 과정을 크게 둘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실험 1을 통해, ‘텍스트만’ 제시된 자료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러시아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전달하는 설명적 텍스트를 읽은 집단과 동일한 내용·구조에 교사 화자를 삽입하고, 여행지에서의 주관적 감상과 실제적인 예를 들어 부연 설명한 여행기체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학습 흥미도 차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2에서는 글과 사진이 함께 제공된 이중부호자료인 ‘사진-텍스트’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풍경 사진이 동시에 제공된 자료와 인물 사진이 동시에 제공된 자료 중 어떤 것이 초등학생의 흥미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텍스트의 구성 조건

상황적 흥미 요인을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유발하기 위하여 텍스트가 갖춰야 하는 구성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맥락적·상황적 관련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이나 문제에 관심을 흥미를 느끼고, 관련성과 유용성이 높아야 지식의 전이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일, 2003). 따라서 김학회(2006)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지리 지식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갖도록 맥락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행’과 같이 지리 지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 세계에 대한 ‘사적 지리’로부터 텍스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들의 사적 지리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둘째, 이야기나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조철기(2011)에 의하면, 이야기는 이를 읽는 학생들로 하여금 글 속 화자의 관점과 가치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

간과 장소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장소감과 지리적 상상력을 경험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강명희 외(2007)에서는 사례 기반 학습을 소개하며, 사례는 지속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야기나 사례는 학습자의 기억이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도구인 동시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변화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자료는 신기성의 효과를 높이고 수업 상황에 변화를 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Gilmartin(1982)는 지도와 텍스트의 결합이 지리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배진아 외(2008)는 강의 보조 자료의 변화는 학업 성취도와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학업 성취도는 인지적 수용성, 몰입, 흥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텍스트의 구성 및 활용 방식은 지리 학습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수업을 위한 지리 교육용 텍스트를 (재)구성할 때에는 예상되는 학습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지리적 정보를 좀 더 엄격하고 정교하게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Ⅲ. 실험 1 : 교사 여행기체 텍스트의 효과성 검증

1. 방법

가.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 향상을 위해 교사의 여행 경험을 반영한 사적 지리 텍스트의 활용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실험 1에서는 ‘텍스트만’ 제시된 자료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러시아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전달하는 설명적 텍스트를 읽은 통제 집단과 동일한 내용·구조에 교사 화자를 삽입하고, 여행지에서의 주관적 감상과 실제적인 예를 들어 부연 설명한 여행기체 텍스트를 읽은 처치 집단의 학습 동기에 대한 내적 정서 반응을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정서적 반응의 하위 요인으로 ‘학습 흥미’와 ‘지역 선호도’를 두고 각각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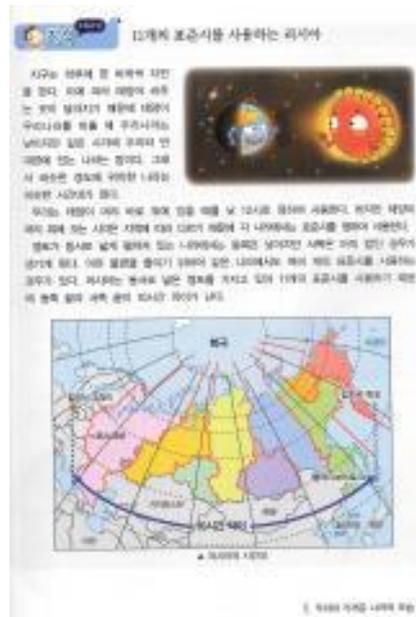
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주가설 1. 교사의 여행 경험을 반영한 사적 지리 텍스트가 기존 교과서의 설명적 텍스트보다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동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개선시킬 것이다.
 - 하위 가설 1-1. 교사의 여행 경험을 반영한 사적 지리 텍스트가 학습 흥미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하위 가설 1-2. 교사의 여행 경험을 반영한 사적 지리 텍스트가 학생들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서의 지역 선호도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실험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도구는 크게 참여자들이 수업 자료로서 읽어야 할 ‘텍스트’와 응답 결과가 나타나는 ‘설문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때 텍스트의 경우, 지리 교육에서 주로 활용하는 텍스트의 유형을 “설명적 공적 지리 텍스트”, “개인화 된 사적 지리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행하였다. 특히, 실험 텍스트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평균적인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원문을 일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1쪽 분량(1/3이하 수준)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읽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과제의 길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과제 특성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도구 제작에 참고·활용한 교과서의 내용적 근거는 다음 [그림 III-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 실험 1의 교과서 텍스트 추출 근거
(출처: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또한, 실험 도구로 활용된 교사의 사적 지리 텍스트가 학생에게 주의 집중과 정서적 반응 측면에서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 내적 반응 및 선호도 관련 설문 문항을 통해 “상황적 흥미도”와 “지리적 지역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이 때, 설문지는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이미 그 효과성이 검증된 측정 도구 ‘SMILES(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학습 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봉미미 외, 2012)’를 실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 수행 과제 : 텍스트 읽기

참여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검사지의 텍스트를 읽고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 것이다. 설문 문항은 총 7개로, 모두 7점 척도의 객관식이고, ‘상황적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 설문 문항 내용은 모두 검사지의 자료를 성실하게 읽었다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직감적인 사고와 관련된 항목으로 제작하였다.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설문 문항은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및 능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 텍스트 재구성 전략

실험 1은 ‘텍스트만’ 제시되는 상황으로, 통제 집단과 처치 집단 투입 텍스트의 차이는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여부에 두었다. 따라서, 통제 집단은 러시아의 표준시에 대한 공적지리 텍스트를, 처치 집단은 이에 대한 여행지에서의 감상이 부연 설명된 ‘사적지리 텍스트’를 읽고 학습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표 III-1> 실험 1의 검사 도구 구분

구분	공적지리 텍스트	사적지리 텍스트
지시문	<p>♣ 다음은 6학년 2학기 사회 과목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의 모습: 러시아 편’ 내용 이해를 위한 교과서 71쪽 글의 일부를 고쳐 쓴 글입니다.</p>	<p>♣ 다음은 6학년 2학기 사회 과목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의 모습: 러시아 편’ 내용 이해를 위한 지난 여름방학 중에 있었던 선생님의 러시아 여행기 일부분입니다.</p>
제시글	<p>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러시아 ... (생략)...</p> <p>러시아 동서를 가로지르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8개의 시간대를 통과하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1만 km, 지구 둘레의 약 1/4를 달리는 기차 노선이다. 러시아는 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 모든 역의 기차 출발 및 도착 시간표는 구간에 상관없이 모두 모스크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기차 출발시각은 오후 10시라도, 실제로 예매한 티켓에는 모스크바 기준 시각인 오후 3시로 적히게 되는 것이다.</p>	<p>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러시아 ... (생략)...</p> <p>(지난 여름방학에 러시아 동서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위해 내가 탔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8개의 시간대를 통과하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1만 km, 지구 둘레의 약 1/4를 달리는 기차 노선이었다. 러시아는 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 기차 시간표를 11개의 현지 시각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마 시간 계산하다 기차를 놓치는 승객이 엄청날 것 같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러시아 모든 역의 기차 출발 및 도착 시간표는 구간에 상관없이 모두 모스크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내가 타고 싶었던 밤 기차 출발시각은 오후 10시였지만, 실제로 예매한 티켓에는 모스크바 기준 시각인 오후 3시라고 적혀있었다.)</p>

※ 처치된 텍스트 사실 확인을 위해 텍스트 서체에 변화를 주어 명시하였으나, 실제 실험 상황에서는 각 텍스트 편집 및 구성은 상태는 동일함.

공적 지리 자료는 앞 장의 <표 III-1>에서 보여 지듯이, 교과서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표준시의 활용의 예’에 대한 하나의 문단을 추가 서술하였다. 이 때, 최대한 ‘사실’ 위주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하였다. 한편, 사적 지리 자료는 교사 화자를 삽입하여 독자인 학생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어, 독자가 글에 대해 자기 관련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기행문의 성격이 나타나도록, 화자의 느낌, 구체적인 사례 등의 문장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는 지시문과 함께 제공되었는데, 공적 지리 텍스트에는 ‘교과서 ○○쪽 글의 일부를 고쳐 쓴 글입니다.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의 지시문이, 교사의 사적 지리 텍스트가 제시될 경우에는 ‘지난 여름방학 중에 있었던 선생님의 러시아 여행기 일부분입니다.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의 지시문이 사용되었다.

3) 설문 문항 및 척도

실험 도구로 활용된 공적·사적 지리 텍스트가 학생들의 집중과 정서적 반응 측면에서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반응 설문 문항을 통해 ‘상황적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학습 흥미와 지역 선호도 등 학생 및 학습과정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 문제 해결에 적합한 기 개발된 척도 ‘SMILES(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학습 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 (봉미미 외, 2012)’를 채택하였다. 이는 두뇌동기연구와 관련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개발해 낸 것으로, 외국 연구의 기 개발된 척도 활용 시 번역·번안 및 문항의 동등성 가정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한국 학생들의 특성과 경향성 측정에 용이하도록,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새롭게 개발해 낸 것이다. 이 때,

척도는 기본적으로 모두 리커트 형식을 취하며, 학생들은 주어진 문장에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봉미미 외(2012)의 연구 과정에 따르면, 척도의 양호한 정도를 현장검증하기 위하여 14~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다음, 기존 척도들과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술통계 결과 중에서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등에서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모든 문항들은 예상된 범위 안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한 뒤, 문항별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표준화 계수와 비표준화 계수를 모두 제시하였다. 개인적 흥미도 측정 문항은 총 5개로 비표준화 신뢰도 0.87, 표준화 신뢰도 0.88, 상황적 흥미의 경우 총 4개로 위의 순서대로 0.94, 0.94가 나왔다. 다음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이용하여, 기존의 척도들과 얼마나 상관이 높은지(공인타당도) 그리고 관련 변인들을 얼마나 잘 예측·설명하고 있는지(예측타당도)를 포함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인타당도 부분에서는 개발된 척도 및 하위차원의 대부분이 기존 타당화된 척도 및 차원들과 각 문항별로 0.69~0.89 범위의 결과 값을 얻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관련된 종속변인들과도 예상대로 설명 가능한 결과를 얻어 예측타당도를 확보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본 연구 실험 과정에서는 다음 장의 <표 III-2>와 같이, 각 실험별 상황에 맞게 일부 지시어만 수정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상황적 흥미에 대한 모든 문항에 ‘이번 학기’, ‘과목’ 대신에 ‘이번 단원 사회 수업’, ‘학습 자료’로 바꾸어 구체화하였다.

<표 III-2> 실험 1의 상황적 흥미도 검사 문항

하위구인	문항
상황적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가 좋다. •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는 나의 흥미를 유발한다. •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는 나의 주의를 끈다. •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를 활용한 수업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또한,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 향상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안병윤, 2011)를 참고하여, 교사의 여행 경험이 반영된 학습 자료가 학생들에게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서 지역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 III-3>과 같이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표 III-3> 실험 1의 지역 선호도 검사 문항

하위구인	문항
지역 선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수업 [학습 자료]를 읽을 때, 러시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이번 수업 [학습 자료]를 읽을 때, 러시아의 실제 모습이 더 잘 떠오른다. • 이번 수업 [학습 자료]를 읽을 때, 러시아에 한 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본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변인들을 통제하고 집단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공통적으로 평소 지리 수업에 대한 개인적 흥미, 교사 선호도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 검사를 실시하여 동일성이 입증된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 때 활용한 척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장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실험 1의 사전 집단 간 동질성 검사 도구

하위구인	문항						
개인적 흥미도	• 나는 이번 2단원 [사회 수업]이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는 이번 2단원 [사회 수업]을 공부할 때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는 수업시간 외에도 [사회 수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는 이번 2단원 [사회 수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는 [사회 수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될 때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사 선호도	• 평소 사회 수업 시간 선생님이 준비하신 [학습자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주로 긍정적이다(좋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주로 부정적이다(싫은 편이다)						
	• 평소 사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담당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주로 긍정적이다(좋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주로 부정적이다(싫은 편이다)						
지역 이미지	• 평소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주로 긍정적이다(좋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주로 부정적이다(싫은 편이다)						

또한, 실험 참여자들은 교사가 후속 차시 수업을 위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구하는 상황임을 안내하고, 수행 과제를 완료하는데 예상 소요시간은 7~10분이며, 이에 참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학생만 설문지 첫 장 상단에 자필 서명을 한 후, 아래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설문에 참여하는 태도의 진정성과 답변의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선행 연구 결과(Winder and Roggenbuck, 1999)를 참고하여 응용하였다.

다. 실험 참여자

본 실험에서는 교사의 여행 경험이 반영된 사적 지리 교수·학습 자료가 초등학생의 학습 흥미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2개의 공립 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에서 97명의 학생들을 실험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피실험자 중 47명(약 48%)은 남학생, 50명(약 52%)은 여학생이었다. 이 중에서 전체 설문 문항 중 일부를 미응답한 5명의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총 92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라. 실험 방법 및 절차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예비 실험을 시행하였다. 예비 실험은 2017년 10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 1개 학급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실험 1의 2개의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다. 이 때,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이미 검증된 기개발된 설문지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실험 도구의 부족한 점은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현직 교사 3인과 지리교육 전공 박사 2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교사가 후속 차시 수업을 위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구하는 상황임을 안내 받는다. 즉, 학생들에게 있어 어떤 자료가 즐거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수행 과제를 완료하는데 예상 소요시간은 7~10분이며, 실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학생만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텍스트만 제시된 실험 1에서는 교과서의 공적 지리 설명적 텍스트에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여부에 따라 ‘공적 지리 텍스트’와 ‘사적 지리 텍스트’로 구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 내 변인으로 공적 지리 텍스트와 사적 지리 텍스트 2가지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으며,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러시아 지역에 대한 텍스트를 읽은 뒤, 학생들의 내적 정서 반응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현장 실험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지역이 다른 2개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MS Office Excel 2013으로 정리하였으며, SPSS 23.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결과

본 실험의 가설은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사적 지리 텍스트가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 및 지역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본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변인들을 통제하고 집단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공통적으로 평소 지리 수업의 교수·학습 자료 선호도, 지리 수업 교사 이미지 선호도, 러시아 지역 선호도에 대하여 동일성 검사를 하였으며, 수행 과제 읽기 활동 후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이는 크게 ‘학습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로 나누었다.

가.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본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변인들을 통제하고 집단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공통적으로 ‘러시아 지역 이미지, 평소의 지리 수업 교수·학습자료 선호도, 지리 수업 교사 이미지 선호도’에 대하여 3점 척도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평균값이 비슷한 4개 집단을 선별해 내었다. 척도는 기본적으로 모두 리커트 형식을 취하며, 학생들은 주어진 문장에 1(=주로 긍정적이다(좋은 편이다)), 2(=보통이다), 3(=주로 부정적이다(싫은 편이다))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때, 1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고, 1.5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표 III-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5> 실험 1의 사전 검사 기술 통계치

변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러시아 지역 이미지	A학교	공적지리	25	1.52	.50
		사적지리	25	1.48	.50
	B학교	공적지리	21	1.47	.51
		사적지리	21	1.42	.50
지리수업 교수·학습자 료 선호도	A학교	공적지리	25	1.52	.50
		사적지리	25	1.64	.63
	B학교	공적지리	21	1.09	.30
		사적지리	21	1.09	.30
지리 수업 교사 이미지 선호도	A학교	공적지리	25	1.56	.65
		사적지리	25	1.56	.65
	B학교	공적지리	21	1.00	1.25
		사적지리	21	1.00	1.29

실험 1의 피실험자들이 사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러시아에 대한 지역 선호도, 평소 지리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선호도, 평소 지리 수업에 활용되는 교수·학습자료 선호도는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는 “중립” 상태에 가까웠으며, 평소 지리 수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이미지나 수업 자료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 개인이 평소 지리 수업이나 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향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적 흥미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III-6>과 같은 점수값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의 변수명은 “텍스트 유형”이고, 종속 변수는 “개인적 흥미도”이다.

<표 III-6> 실험 1의 집단 간 개인적 흥미도 차이 비교

변인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A학교	공적지리	4.19	1.26	-.23	.21
	사적지리	4.28	1.61		
B학교	공적지리	4.81	1.25	-.14	.77
	사적지리	4.87	1.29		

지리 교과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를 분석한 결과 역시, <표 III-6>에서 보여 지듯이, A학교의 값은 -.23, 유의 확률은 .21, B학교는 -.14, 유의 확률은 .77이 나와 각 학교별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즉, 실험에 앞서 학습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리 교과에 대한 학습 흥미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험 1에 참여한 집단은 총 2개 학교의 4개 학급의 학생 92명이다. 하지만 표본 수가 각각 ‘집단 1(n)=25, 집단 2(n)=25, 집단 3(n)=21, 집단 4(n)=21’으로, 각 집단의 표본 수가 30개 이하이기 때문에 <표 III-7>에서 보여 지듯이 집단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분포의 형태를 띄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III-7> 실험 1의 집단 정규성 검정

변인	Kolmogorov-Smirnov ^a			Shapiro-Wilk		
	통계	df	유의수준	통계	df	유의수준
A학교 공적지리	.11	23	.20	.97	23	.71
A학교 사적지리	.14	23	.20	.92	23	.07
B학교 공적지리	.14	17	.20	.95	17	.51
B학교 사적지리	.10	19	.20	.96	19	.76

나. 결과값 점수 비교

공적 지리 텍스트 자료와 사적 지리 텍스트 자료에 따라 학업 흥미도를 지각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즉, 독립변수의 변수명은 “텍스트 유형”이고, 종속 변수는 “상황적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이다.

공적 지리 텍스트 그룹과 사적 지리 텍스트를 읽은 그룹의 빈도수는 모두 46명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구체적으로 공적 지리와 사적지리 각 상황적 흥미도의 평균값이 4.76, 5.43의 수치를 보여, 공적 지리 텍스트에 비해 사적 지리 텍스트 자료가 학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에서와 같이, 공적 지리 텍스트와 사적 지리 텍스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t값은 -3.26, p값은 0.00으로 가설 1-1의 상황적 흥미도는 채택되었다.

<표 III-8> 실험 1의 상황적 흥미에 대한 점수 비교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공적지리 텍스트	46	4.76	.83	-3.26	.00
사적지리 텍스트	46	5.43	1.01		

하지만, 지역 선호도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는 t값은 -1.40, p값은 0.16으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즉, 순수하게 글자로만 이루어진 텍스트를 제시하였을 때, 학생이 러시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나, 러시아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행 욕구를 자극하거나 내적 동기를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9> 실험 1의 러시아 지역 선호도에 대한 점수 비교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공적지리 텍스트	46	4.76	.83	-1.40	.16
사적지리 텍스트	46	5.43	1.01		

3. 논의

본 실험 1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속 지식 전달 중심의 설명적 텍스트일지라도, 직접적인 여행 경험에서 비롯한 예를 드는 것만으로도 학습 흥미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명 위주의 공적지리 텍스트에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하는 사적지리 내용을 추가하여 동시에 제공하면 지리 학습 흥미 유발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는 공적 지리 설명적 텍스트에 교사 화자를 삽입하여 사적 지리를 관련지어 새로운 경관과 지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감정 이입을 통해 현실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들에게 순수하게 단어로만 구성된 텍스트 읽기를 과제로 제시하였을 때, 해당 지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나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여행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여행기체 텍스트가 기존의 설명적 텍스트에 비해 학습 흥미도는 유의미한 자극이 될지라도, 지역 선호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텍스트는 상황과 맥락을 구체화하는 정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감정적 어필을 통해 ‘더 알고 싶다’ 혹은 ‘가 보고 싶다’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안적으로 삽화의 장점을 제시할 수 있다.

IV. 실험 2: 교사 인물 사진-텍스트의 효과성 검증

1. 방법

가. 가설 설정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교사의 여행기체 텍스트의 긍정적 효과를 전제로, 글과 사진이 함께 제공된 이중부호자료인 ‘사진-텍스트’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적 지리 여행기체 텍스트에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풍경 사진이 동시에 제공된 자료(이하 ‘풍경 사진-텍스트’)와 인물 사진이 동시에 제공된 자료(이하 ‘인물 사진-텍스트’) 중 어떤 유형이 초등학생의 흥미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였다. 이 때, 인물을 촬영한 사진의 제시는 사적 지리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리 교육에서 삽화 자료는 관련 텍스트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사전 지식과의 연결을 강화해 학습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에 근거하여, 가설 2를 도출하였다.

■ **추가설 2.** 교사가 여행 중에 직접 찍거나 찍힌 여행 사진이 기존 교과서의 풍경 사진보다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동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개선시킬 것이다.

- **하위 가설 2-1.** 교사가 여행 중에 직접 찍거나 찍힌 인물 사진-텍스트가 학습 흥미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하위 가설 2-2.** 교사가 여행 중에 직접 찍거나 찍힌 인물 사진-텍스트가 지역 선호도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실험 도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 도구는 크게 참여자들이 수업 자료로서 읽어야 할 ‘사진-텍스트’와 응답 결과가 나타나는 ‘설문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때 텍스트의 경우, 실험 1에서 검증한 것을 토대로 사적 지리 텍스트로서 교과서의 여행기체 텍스트를 발췌하여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에 참고·활용한 교과서의 내용적 근거는 다음 [그림 IV-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 실험 2의 교과서 텍스트 추출 근거

(출처: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이 후, 실험 도구로 활용된 교사의 인물 사진이 학생에게 주의 집중과 정서적 반응 측면에서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 내적 반응 관련 설문 문항을 통해 ‘상황적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를 알아

보았다. 이 때, 설문지는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이미 그 효과성이 검증된 측정 도구 ‘SMILES(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학습 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봉미미 외, 2012)’를 각 실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 수행 과제 : 텍스트 읽기

참여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검사지의 텍스트를 읽고 이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응답하는 것이다. 설문 문항은 총 7개로, 모두 7점 척도의 객관식이고, 상황적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 설문 문항 내용은 모두 검사지의 자료를 성실하게 읽었다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직감적인 사고와 관련된 항목으로 제작하였다.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설문 문항은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및 능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 텍스트 재구성 전략

글과 사진이 동시에 함께 제공된 실험 2에서는 텍스트는 교과서의 여행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반면, 사진 자료는 피사체로서 교사의 포착 여부에 따라 ‘풍경 사진-텍스트’와 ‘인물 사진-텍스트’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실험 2의 수행 과제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장의 <표 IV-1>와 같다.

<표 IV-1> 실험 2의 검사 도구 구분

구분	풍경사진-텍스트	인물사진-텍스트
지시문	<p>♣ 다음은 6학년 2학기 사회 과목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의 모습: 러시아 편’ 내용 이해를 위한 교과서 71쪽 글의 일부를 고쳐 쓴 글입니다.</p>	<p>♣ 다음은 6학년 2학기 사회 과목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의 모습: 러시아 편’ 내용 이해를 위한 지난 여름방학 중에 있었던 선생님의 러시아 여행기 일부분입니다.</p>
제시글	<p style="text-align: center;">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p> <p>그곳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하였다. 이 열차는 크고 작은 90개의 도시를 지나고 그중 60여 개의 역에서 잠시 쉰다. 객실이 좁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지낼 만하다. 차창 밖은 넓은 들판이고 멀리 산들이 보인다. 가도 가도 끝이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바라본 들판.</p>	<p style="text-align: center;">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p> <p>그곳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하였다. 이 열차는 크고 작은 90개의 도시를 지나고 그중 60여 개의 역에서 잠시 쉰다. 객실이 좁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지낼 만하다. 차창 밖은 넓은 들판이고 멀리 산들이 보인다. 가도 가도 끝이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선생님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내려 걸어본 들판.</p>

※ 처치된 텍스트 사실 확인을 위해 텍스트 서체에 변화를 주어 명시하였으나, 실제 실험 상황에서는 각 텍스트 편집 및 구성은 상태는 동일함.

텍스트의 글은 교과서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처치 집단에는 여행기체 텍스트에 교사 화자를 삽입하고, 교사의 인물 사진을 함께 제공하였다. 이때, 사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풍경을 배경으로 피사체의 교

사의 등장 여부만 차이를 두었다. 그리고 이는 지시문과 함께 제공되었는데, 공적 지리 텍스트에는 ‘교과서 ○○쪽 글의 일부를 고쳐 쓴 글입니다.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의 지시문이, 교사의 사적 지리 텍스트가 제시될 경우에는 ‘지난 여름방학 중에 있었던 선생님의 러시아 여행기 일부분입니다.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의 지시문이 사용되었다.

3) 설문 문항 및 척도

실험 도구로 활용된 풍경·인물 사진-텍스트가 학생에게 주의 집중과 정서적 반응 측면에서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 내적 반응 설문 문항을 통해 ‘상황적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학습 흥미와 지역 선호도 등 학생 및 학습과정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 문제 해결에 적합한 기 개발된 척도 ‘SMILES(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학습 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 (봉미미 외, 2012)’를 채택하여 실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보다 상세한 검증 내용은 직전 ‘Ⅲ장 1절의 3) 실험 도구’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실험 참여자

본 실험에서는 교사의 여행 경험이 반영된 사적 지리 교수·학습 자료가 초등학생의 학습 흥미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2개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6학년 101명의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피실험자 중 51명(약 50%)은 남학생, 50명(약 50%)은 여학생이었다. 이 중에서 실험에 불성실하게 참여하였다고 판단

한 1명의 학생과 전체 설문 문항 중 일부를 미응답한 4명의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총 96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풍경 사진-텍스트와 인물 사진-텍스트 이렇게 각 실험에서 집단 내 변인으로 2가지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으며, 수업 자료로서 러시아 지역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학습 흥미와 지역 선호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라. 실험 방법 및 절차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예비 실험을 시행하였다. 예비 실험은 2017년 10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 1개 학급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실험 2의 2개의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다. 이 때,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이미 검증된 기개발된 설문지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실험 도구의 부족한 점은 연구자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현직 교사 3인과 지리교육 전공 박사 2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교사가 후속 차시 수업을 위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구하는 상황임을 안내 받는다. 즉, 학생들에게 있어 어떤 자료가 즐거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수행 과제를 완료하는데 예상 소요시간은 7~10분이며, 실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학생만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중부호자료로서 글과 사진이 동시에 제공된 실험 2에서는 교과서의 사적 지리 여행기체 텍스트에 교사 화자의 삽입 및 사진 자료에 피사체

로서 교사의 등장 여부에 따라 ‘풍경 사진-텍스트’와 ‘인물 사진-텍스트’로 구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 내 변인으로 상기 2가지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으며, 사회 수업 중 선생님이 나눠 준 학습 자료라고 생각하며 러시아 지역 여행에 대한 텍스트를 읽은 뒤, 학생들의 내적 정서 반응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현장 실험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지역이 다른 2개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MS Office Excel 2013으로 정리하였으며, SPSS 23.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교사의 여행 경험을 반영한 사적 지리 삽화 텍스트 자료가 지리 학습 흥미 및 지역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글은 교과서의 여행기체 텍스트를 동일하게 사용하되, 통제 집단에는 교과서의 풍경 사진이, 처치 집단에는 교사의 인물 사진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본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변인들을 통제하고 집단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공통적으로 평소 지리 수업의 교수·학습 자료 선호도, 지리 수업 교사 이미지 선호도, 러시아 지역 이미지에 대하여 동일성 검사를 하였으며, 수행 과제 읽기 활동 후에 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이는 크게 학습 흥미와 지역선호도로 나누었다.

가.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본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변인들을 통제하고 집단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공통적으로 ‘러시아 지역 이미지, 평소의 지리 수업 교수·학습자료 선호도, 지리 수업 교사 이미지 선호도’에 대하여 3점 척도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평균값이 비슷한 4개 집단을 선별해 내었다. 척도는 기본적으로 “만족, 보통, 불만족”의 3점 리커트 척도 형식을 취하며, 학생들은 문장을 보고 “1(=주로 긍정적이다(좋은 편이다)), 2(=보통이다), 3(=주로 부정적이다(싫은 편이다))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때, 1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고, 1.5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표 IV-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V-2> 실험 2의 사전 검사 기술 통계치

변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러시아 지역 이미지	A학교	풍경사진	24	1.37	.49
		인물사진	25	1.52	.50
	B학교	풍경사진	25	1.40	.33
		인물사진	22	1.36	.29
지리수업 교수·학습자료 선호도	A학교	풍경사진	24	1.33	.48
		인물사진	25	1.48	.50
	B학교	풍경사진	25	1.12	.20
		인물사진	22	1.09	.21
지리 수업 교사 이미지 선호도	A학교	풍경사진	24	1.29	.46
		인물사진	25	1.32	.47
	B학교	풍경사진	25	1.04	1.08
		인물사진	22	1.04	1.09

실험 2의 피실험자들이 사전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러시아에 대한 지역 선호도, 평소 지리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선호도, 평소 지리 수업에 활용되는 교수·학습자료 선호도는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 지리 수업을 하는 교사의 수업 자료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며, 러시아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는 중립 상태에 가까웠다.

또한, 응답자의 교사나 지리교과 등 평소 지리 수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흥미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t-검정한 결과, 이를 통해 <표 IV-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의 변수명은 “사진 유형”이고, 종속 변수는 “개인적 흥미도”이다.

<표 IV-3> 실험 2의 집단 간 개인적 흥미도 차이 비교

변인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A학교	풍경사진	4.45	1.08	.38	.49
	인물사진	4.59	1.31		
B학교	풍경사진	5.03	1.08	-1.61	.69
	인물사진	5.54	1.09		

지리교과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를 분석한 결과 역시, A학교의 값은 .38, 유의 확률은 .49, B학교는 -1.61, 유의 확률은 .69가 나와 각 학교별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즉, 실험에 앞서 학습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리 교과에 대한 학습 흥미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험 2에 참여한 집단은 총 2개 학교의 4개 학급의 학생 82명이다. 하지만 표본 수가 각각 집단 1(n)=24, 집단 2(n)=25, 집단 3(n)=25, 집단 4(n)=22으로, 각 집단의 표본 수가 30개 이하이기 때문에 정규성 검정을 통해 <표 IV-4>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정규분포의 형태를 띄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IV-4> 실험 2의 집단 정규성 검정

변인	Kolmogorov-Smirnov ^a			Shapiro-Wilk		
	통계	df	유의수준	통계	df	유의수준
A학교 풍경사진	.13	23	.20	.94	23	.22
A학교 인물사진	.19	24	.01	.94	24	.21
B학교 풍경사진	.12	18	.20	.96	18	.75
B학교 인물사진	.25	18	.00	.76	18	.00

나. 결과값 점수 비교

교과서의 풍경사진-텍스트와 교사 인물사진-텍스트에 따라 학업 흥미도를 지각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즉, 독립변수의 변수명은 “사진-텍스트의 유형”이고, 종속 변수는 “상황적 흥미도”, “지역 선호도”이다.

풍경 사진-텍스트와 인물 사진-텍스트를 읽은 그룹의 빈도수는 각 41명과 42명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구체적으로 공적지리와 사적지리 각 상황적 흥미도의 평균값이 4.76, 5.43의 수치를 보여, 풍경사진-텍스트에 비해 인물 사진-텍스트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학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적 흥미도에서 풍경 사진-텍스트와 인물 사진-텍스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값은 -3.81, p값은 0.0으로 가설 2-1의 상황적 흥미도는 채택되었다.

<표 IV-5> 실험 2의 상황적 흥미에 대한 점수 비교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풍경사진 사진-텍스트	49	4.76	.83	-3.81	.00
인물사진 사진-텍스트	47	5.43	1.01		

지역 선호도의 경우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t값은 -3.86, p값은 0.0으로 가설 2-2도 채택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글과 사진이 함께 제공되는 사진-텍스트가 학생의 여행 욕구를 자극하거나 내적 동기를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실험 2의 러시아 지역 선호도에 대한 점수 비교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풍경사진 사진-텍스트	49	4.76	.83	-3.86	.00
인물사진 사진-텍스트	47	5.43	1.01		

3. 논의

본 실험 2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로만 구성된 텍스트에 비해 사진 자료를 삽입하여 글과 사진이 함께 제공되었을 때, 학습 흥미도에 좀 더 큰 자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선호도 비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사진 자료는 설명적 텍스트의 활자보다 더 쉽게 눈에 띄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보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만으로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을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여러 줄의 글만으로 구성하는 것 보다 글과 사진을 동시에 구성하여 이중부호자료의 형태로 제시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동일한 내용 구성의 사적 지리 텍스트에 자연을 촬영한 풍경 사진을 함께 제공한 것에 비해, 인물이 포착된 인물 사진을 포함한 것이 학습 흥미 및 지역 선호도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여러 사진 중에서도 드라마적 요소가 있는 즉, 내러티브를 찾을 수 있는 사진이 감정적 어필을 통해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보다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특히, 사진에 포함된 인물이 교사, 친구 등 학습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학생들은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V.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사적지리 텍스트 및 사진 자료가 초등학생의 지리 학습 흥미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립 초등학교 2곳의 6학년 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 1에서는 공적 지리 텍스트와 사적 지리 텍스트, 실험 2에서는 풍경 사진-텍스트와 인물 사진-텍스트, 이렇게 각 실험에서 집단 내 변인으로 2가지 텍스트 유형 중 어느 한 유형에 무선 배정되었다. 그리고 수행 과제로서 학생들은 러시아 지역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학습 흥미도와 지역 선호도를 측정하는 7점 리커트 척도의 객관식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속 지식 전달 중심의 설명적 텍스트일지라도, 직접적인 여행 경험에서 비롯한 예를 드는 것만으로도 학습 흥미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명 위주의 공적지리 텍스트에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하는 사적지리 내용을 추가하여 동시에 제공하면 지리 학습 흥미 유발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는 공적 지리 설명적 텍스트에 교사 화자를 삽입하여 사적 지리를 관련지어 새로운 경관과 지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감정 이입을 통해 현실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문자로만 구성된 텍스트에 비해 사진 자료를 삽입하여 글과 사진이 함께 제공되었을 때, 학습 흥미도에 좀 더 큰 자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선호도 비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사진 자료는 설명적 텍스트의 활자보다 더 쉽게 눈에 띄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보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만으로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을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여러 줄의 글만으로 구성하는 것 보다 글과 사진을 동시에 구성하여 이중부호자료의 형태로 제시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동일한 내용 구성의 사적 지리 텍스트에 자연을 촬영한 풍경 사진을 함께 제공한 것에 비해, 인물이 포착된 인물 사진을 포함한 것이 학습 흥미 및 지역 선호도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여러 사진 중에서도 드라마적 요소가 있는 즉, 내러티브를 찾을 수 있는 사진이 감정적 어필을 통해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보다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특히, 사진에 포함된 인물이 교사, 친구 등 학습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학생들은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사적 지리 자료가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 미치는 양상을 더욱 다각적인 형태로 확인해보기 위해서 ‘인지 이해’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료

유형에 따른 학습 흥미와 지역 선호도 등의 정서적 반응만을 측정하였다. 실제 인지 정도와 같은 학습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정교화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실험에 투입된 텍스트에 포함된 지리적 정보의 인지 이해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 설계는 문항 개발에서 매우 정교화된 작업이 요구될 것이지만 실제 학업 성취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의 공학 기술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제공되어 학습 효과에 대한 그 공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과 처치 집단의 보다 완벽한 통제 상황을 위하여, 인쇄 기반 학습 자료에 그 범위를 제한하여 자극의 반응 정도를 측정하였다. 멀티미디어 활용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구글 어스, GIS, 비디오 자료 등 활용 양상은 학습 효과 측면에서 어떤 유의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른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부 지원 해외 현장 답사단으로 실제 방학을 이용하여 러시아 지역 답사 활동에 참여한 교사 2명과, 해당 교사들과 교수·학습 경험이 있는 특정 지역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편의 추출한 표본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여지를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표집된 집단의 특성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하여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3. 교육적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초등 지리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사적 지리 텍스트 및 사진 자료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사의 여행 경험이 반영된 사적 지리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수체제는 여전히 학급담임제로 담임교사 한 사람이 6개 학년, 10개 이상 전 교과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여행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수집한 교수·학습 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들의 여행 경험 빈도가 늘어나면서, ‘여행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절실한 현 시점에, ‘지속 가능한’ 지리 교육 활동 실천을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교사들이 여행 연수를 통해 수집하고 개발할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방안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교사가 여행 과정 중 수집한 교수·학습 자료는 지리 학습의 흥미를 향상시켜, 자기 주도적 학습의 자료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양한 제시 방식의 멀티미디어 자료(비디오, 미술, 음악 등)에 활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멀티미디어는 학습 자료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용이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앎의 방식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교사의 여행 경험 반영 사적 지리 자료는 지리 학습 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사회 등 다양한 교과 교육 주제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행기를 통해 사회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

로써 학생들의 시야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교사의 국외 여행 연수 실행에 대한 여론(16)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즉,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 구성원들이 교사의 자기 장학 프로그램 탐색에 대한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교사는 가르치는 동시에 배우는 존재여야 한다’는 주제를 ‘교육의 문제’로 인식하는 성숙한 사회가 될 때, 교사의 국외 여행 연수 실천에 대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6) 감사원, 2015년 12월 16일자, “‘관광성’ 교사해외연수 문제 지적”

참 고 문 헌

- 강명희 · 구한나 · 문소영 · 정지윤 · 김지심, 2007, “온라인 강의에서 내용제시유형이 인지적 실재감과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4), 155-181.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 구혜영, 2006, “현장답사사진을 이용한 중학교 사회과 지역지리수업의 효과연구 -정선, 평창, 영월 지역을 사례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화, 2015, 「지리교육학 강의노트 : 더 깊은 앎을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서울: 푸른길.
- 김경미, 1999, *원본과 축소본 GALT 의 비교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다원, 2015,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서 ‘여행’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131-162.
-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르완다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52(2), 59-72.
- 김성일, 2003, “교육적 여가와 여가적 교육: 학습환경으로서의 여가환경과 활동 중심의 흥미로운 교육”, *한국교육학연구*, 9(2), 143-162.
- 김성일·윤미선·소연희, 2008,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187-221.
- 김성일·윤미선, 2004, “학습에 대한 흥미와 내재동기 증진을 위한 학습 환경 디자인”, *교육방법연구*, 16(1), 1-28.
- 김정아·남상준, 2005, “장소 중심 지리교육내용의 구성 원리의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85-96.
- 김정아, 2015, “어린이의 일상적 여정의 지리교육적 의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3), 23-38.
- 김학회, 2006, “세계지리에서 여행의 교육적 의미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3), 231-250.
- 김한별, 2013, “교사발달 과정에서 학습경험 탐색: 생애사적 접근”, *Andragogy Today*, 16(3), 1-34.

- 류재명, 2002, “한국 지리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27-40.
- 류재명, 2003, “지리교육 내용 디자인에서의 가능한 변이 탐색”, 지리과교육, 6, 47-64.
- 박규상, 2014, 「처음 쓰는 논문 쓰기」, 샌들코어
- 박복순, 2006, “텍스트 서술 양식에 따른 학습자 선호도와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중학교 세계지리 단원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50, 63-79.
- 박선미·최정호·정이화, 2012, “텍스트와 그림 자료 제시 방식에 따른 지리 학습의 효과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19-32.
- 박용희, 2014, “동영상 강의에서 상황적 흥미 유발 요인 탐색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진아·김유진·전병호, 2008,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강의의 정보전달 효과: 배경 템플릿과 강의 보조 자료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3), 41-84.
- 봉미미, 김성일, Johnmarshall Reeve, 임효진, 이우걸, Yi Jiang, 김진호, 김혜진, 노아름, 노언경, 백선희, 송주연, 신지연, 안현선, 우연경, 원성준, 이계형, 이민혜, 이선경, 이선영, 이지수, 정윤경, Catherine Cho, 황아름, 2012, “SMILES(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학습환경에서의 학생동기척도”,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인출.
- 손유정·남상준, 2009, “뇌과학에 기반한 내러티브의 사회과교육적 함의: 장소학습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2), 109-124.
- 손명철, 2016, “세계지리 수업에서 여행기를 활용한 정의적 영역의 보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730-744.
- 송지준, 2011,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 21세기사.
- 유덕근, 2010, 텍스트 구성의 인지적 접근-이미지 활용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50, 147-171.
- 윤미선·김성일, 2003, “중·고생의 교과흥미 구성요인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3), 271-290.

- 윤미선·김성일, 2004, “선호교과에 따른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성취의 차이”, 교육문제연구, 20, 51-72.
- 안병윤, 2009, “여행 이야기 텍스트 활용과 그 유형에 따른 학습자 선호도 및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를 중심으로”, 지리교육 논집, 55, 43-53.
- 알랭 드 보통, 2011, 「여행의 기술」, 청미래.
- 이동민, 2016, “2015 개정 고등학교 여행지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의미구조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5(1), 1-11.
- 이정미, 2007, “초등학생의 여행경험이 사회교과 학습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지역 4, 5, 6학년을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함경림, 2011, “효과적인 지리 교수·학습을 위한 유추의 이해와 활용”, 대한지리학회지, 46(4), 534-553.
- 조나단 갓설, 2014, 「스토리텔링 애니멀」, 민음사.
- 조경은, 2004, “설명적 텍스트 읽기에서 작동기억과 텍스트 유형이 읽기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수진, 2017, “초등교사의 여행 경험과 초등지리교육-전환학습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1), 33-47.
- 조철기, 2011, “내러티브를 활용한 지리 수업의 가치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35-52.
- 조철기, 2013, “비주얼 리터러시에 기반한 사진 활용 지리수업 방법”,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13-23.
- 진경아, 2013, “디지털 교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흥미요소 분석: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수지, 2016, “세계지리에서 여행의 교육적 의미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3), 231-250.
- 최인철, 2014, “인문학 아고라 '어떻게 살 것인가?' 5강: 행복에 관하여”, 플라톤 아카데미TV YouTube 채널에서 인출.
- 파커 J. 파머, 1997,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한문화
- 홍후조·백경선, 2004, “교육과정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탐구 영역의 규명과 그 정당화(Ⅱ): 교육과정 결정의 세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2(4), 27-48.

- Anderson, R. C., Shirey, L. L., Wilson, P. T., and Fielding, L. G., 1987, Interest- ingness of children's reading material. In R. E. Snow and M. J. Farr (Eds.), *Aptitude, learning, and instruction: Vol. 3. Conative and affective process analyses*, 287-299. Hillsdale. NY: Erlbaum.
- Brown, J. S., Collins, A., and Duguid, P., 1989,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 32-42.
- Davis, J. C. and Palmer, J., 1992, "A strategy for using children's literature to extend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Social Studies*, May/June, 125-128.
- Downs, R.M., 1994, Being and becoming a geographer: An agenda for geography educ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4(2), 175-191.
- Gilmartin, P. P., 1982, The instructional efficacy of maps in geographic text. *Journal of Geography*, 81(4), 145-150.
- Guinn, P., 2005, Meta-analysis of the modality effect, *Learning and Instruction*, 15, 313-331.
- Hidi, S., 2006, Interest : A unique motivational valuable. *Educational Research Review*, 1, 69-82.
- Hidi, S., 1990, Interest and its contribution as a mental resource for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0, 549-571.
- Hidi, S. and Baird, 1986, Interestingness-A Neglected Variable in Discourse Processing. *Cognitive Science* 10, 179-194.
- Hidi, S., Renninger, K. A., & Krapp, A., 2004, Interest, a motivational variable that combines affective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D. Y. Dai & R. J. Sternberg, *Motivation, emotion, and cognition: Integrative perspectives on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development*. 89-115. Mahwah, NJ: Erlbaum.
- Lambert, D., and Balderstone, D., 2012, Learning to teach geography in the secondary school: a companion to school experien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32-240.

- Lowenthal, David, 1961, GEOGRAPHY, EXPERIENCE, AND IMAGINATION: TOWARDS A GEOGRAPHICAL EPISTEMOLOGY 1,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1(3), 241-260.
-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Jossey-Bass, CA.
- Paivio, A., 1991, Dual Coding Theory: Retrospect and current statu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45(3), 255-287.
- Peeck, J., 1993, Increasing picture effects in learning from illustrated text, *learning and Instruction*, 3, 227-238.
- Purnell, K. N., and Solman, R. T., 1991, The influence of technical illustrations on students' comprehension in geograph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6(3), 277-299.
- Renninger, K. A., Hidi, S., Krapp, A., 1992, *The Role of Interest in Learning and Develop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Richey, R. C. and Klein, J. D., 2007,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chank, R. C., 1979, Interestingness: Controlling inferences. *Artificial Intelligence*, 12, 273-297.
- Schiefele, U., 1991, Interest, Learning, and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299-323.
- Schiefele, U., 1992, Topic interest and levels of text comprehension. In K. A. Schnotz, W., and Bannert, M., 2003, Construction and interference in learning from multiple representation. *Learning and instruction*, 13(2), 141-156.
- Schraw, G., and Lehman S., 2001, Situational interest: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23-52.
- Shepard, R. N., 1984, Ecological constraints on internal representation: Resonant kinematics of perceiving, imagining, thinking, and dreaming. *Psychological review*, 91(4), 417-447.
- Sauer, C.O., 1956, The education of a geograph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6(3), 287-299.

- Sewall, G., 1988, "Literary lackluster", *American Educator*, 12, 35-102.
- Thomas, R. and Thomas, H., 2005, Understanding tourism policy-making in urban area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mall firms, *Tourism Geographies*, 7(2), 121-137.
- Tobin, B.A., 1974, The bicycle boom of the 1890s: The development of private transportation and the birth of the modern tourist,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7(4), 838-849.
- Van Mane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inder, C. J. and Roggenbuck, J., 1999, "Reducing Theft Of Petrified Wood At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Wixson, K. K., 1991, *Houghton Mifflin Social Studies(Teacher's Edition for A message of ancient days)*, Boston: Houghton Mifflin.

부록 2-1. 실험 1 공적지리 텍스트(통제변인)

♣ 다음은 6학년 2학기 사회 과목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의 모습: 러시아 편' 내용 이해를 위한 교과서 71쪽 글의 일부를 고쳐 쓴 글입니다.

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러시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한다. 이에 따라 태양이 비추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나라를 비출 때 우리나라는 낮이지만 같은 시각에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밤이다. 그래서 비슷한 경도에 위치한 나라는 비슷한 시간대가 된다.

우리는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 있을 때를 낮 12시로 정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태양이 머리 위에 오는 시각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표준시를 정하여 사용한다.

영토가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는 나라에서는 동쪽은 낮이지만 서쪽은 아직 밤인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같은 나라에서도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는 동서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쪽 끝과 서쪽 끝이 10시간 차이가 난다.

러시아 동서를 가로지르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8개의 시간대를 통과하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1만 km, 지구 둘레의 약 1/4를 달리는 기차 노선이다. 러시아는 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 모든 역의 기차 출발 및 도착 시간표는 구간에 상관없이 모두 모스크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기차 출발시각은 오후 10시라도, 실제로 예매한 티켓에는 모스크바 기준 시각인 오후 3시로 적히게 되는 것이다.

부록 2-2. 실험 1 사적지리 텍스트(처치번인)

♣ 다음은 6학년 2학기 사회 과목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의 모습: 러시아 편' 내용 이해를 위한 **지난 여름방학 중에 있었던 선생님의 러시아 여행기 일부분입니다.**

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러시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한다. 이에 따라 태양이 비추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나라를 비출 때 우리나라는 낮이지만 같은 시각에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밤이다. 그래서 비슷한 경도에 위치한 나라는 비슷한 시간대가 된다.

우리는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 있을 때를 낮 12시로 정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태양이 머리 위에 오는 시각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표준시를 정하여 사용한다.

영토가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는 나라에서는 동쪽은 낮이지만 서쪽은 아직 밤인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같은 나라에서도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는 동서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쪽 끝과 서쪽 끝이 10시간 차이가 난다.

지난 여름방학에 러시아 동서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위해 내가 탔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8개의 시간대를 통과하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1만 km, 지구 둘레의 약 1/4를 달리는 기차 노선이었다. 러시아는 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 기차 시간표를 11개의 현지시각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마 시간 계산하다 기차를 놓치는 승객이 엄청날 것 같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러시아 모든 역의 기차 출발 및 도착 시간표는 구간에 상관없이 모두 모스크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내가 타고 싶었던 밤 기차 출발시각은 오후 10시였지만, 실제로 예매한 티켓에는 모스크바 기준 시각인 오후 3시라고 적혀있었다.

부록 3-2. 실험 2 인물사진-텍스트(처치변인)

◆ 다음을 읽고 각 문장 사이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주세요. (10점)

Alberici 청년 열차출 퇴고



◆ Alberici 청년 열차출퇴고

문학작품의 인물 연구는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 양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배경을 통해 그의 행동을 설명한다. 특히, 주인공의 열차출퇴고 장면은 그의 심리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면은 주인공의 고독과 외로움을 강조하며, 그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낸다.



◆ Alberici 청년 열차출퇴고



◆ Alberici 청년 열차출퇴고

이 작품은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 배경을 통해 그의 행동을 설명한다. 특히, 주인공의 열차출퇴고 장면은 그의 심리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면은 주인공의 고독과 외로움을 강조하며, 그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낸다.



◆ Alberici 청년 열차출퇴고



◆ Alberici 청년 열차출퇴고

부록 4. 실험 1, 2 학습 흥미 측정을 위한 공통 설문지

다음 문항들을 읽고, 자신과 비교하여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1'에,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7'에 표시하세요.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항을 읽고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세요.

		1	2	3	4	5	6	7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회교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관없이, 이번 2단원 사회 수업에 사용된 [학습 자료]를 떠올리며 답해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가 좋다.	1	2	3	4	5	6	7
2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는 나의 흥미를 유발한다.	1	2	3	4	5	6	7
3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는 나의 주의를 끈다.	1	2	3	4	5	6	7
4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를 활용한 수업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1	2	3	4	5	6	7
5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를 읽을 때, 러시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7
6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를 읽을 때, 러시아의 실제 모습이 더 잘 떠오른다.	1	2	3	4	5	6	7
7	이번 수업 우리 [학습 자료]를 읽을 때, 러시아에 한 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번 사회 수업 [학습 자료]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번 2단원 [사회 수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떠올리며 답해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이번 2단원 [사회 수업]이 흥미롭다.	1	2	3	4	5	6	7
2	나는 이번 2단원 [사회 수업]을 공부할 때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1	2	3	4	5	6	7
3	나는 수업시간 외에도 [사회 수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1	2	3	4	5	6	7
4	나는 이번 2단원 [사회 수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1	2	3	4	5	6	7
5	나는 [사회 수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될 때 기쁘다.	1	2	3	4	5	6	7

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Uses of Text including Teachers' Travel Experiences on Primary Students' Academic Interest in Geography Lessons

Hye-sun, Shi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brought important changes to spending our leisure time entertaining ourselves and travelling in abroad has become easy and popular. Also, travelling has been acknowledged as valuable learning experiences in geography lessons due to the rapid growth in outbound travel of ever-increasing number of teachers and students, and it gives both of them the chance to increase their knowledge and wisdom about themselves and the world, in order to widen their perspective on many things. Hence, Travel Geography is now regarded 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areas of education.

Student motivation and engagemen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eacher narratives, and student achievement gains throughout learning with teacher prepared materials. As teachers gain experience, their students are more likely to do better on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a subject and get interested to undertake further stu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hether teachers travel experiences influence the motivations and travel desire of primary students. The aim is to discover cues in the emotional response of primary students that can enhance sustainable geography learning and travel choices and therefore improve future of the geography lesson. Moreover, the study provides useful tips for teachers to use their travel experience to enrich their teaching for the better education results.

Although teachers are encouraged to reconstruct their teaching materials, they use the textbook as the most important teaching material. Hence, **this article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uses of printed text, including teachers' travel experiences on students' academic interest in geography lessons in South Korea and two types of experiments are presented: 1. Expository text vs. Narrative text; 2. Text with Pictures of Landscape vs. Text with Pictures of People.**

As a correlational survey, the study population comprised all the 188 students at a primary level 6 for the year 2017. Survey paper was the instruments us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the study.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sed using the t-test.

The findings revealed that teachers' travel experiences were significant with students' learning outcomes as measured by their emotional response in their geography lessons:

First, Personalized Narrative Text which was reconstructed based on teachers' travel experience tended to have improved student motivation. Narrative texts based on teacher's traveling experience deal with real world and can be beneficial to understand the geographical issues. An expository text is intended to identify and characterise the facts, but narrative one is more specified.

Second, Text with pictures of teacher which were taken during his/her travelling tended to have improved student motivation and travel desire. Pictures can support the delivery of content and illustrate the geographical concepts, and they will be more effective if they are meaningfully integrated into their learning. Students get more interested with their studies when it matters of whom they have known, so if the travel text are offered with pictures of their teacher, the students become more excited to engage with their activities.

The research focuses on academic interests becau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phase of learning environment for primary students. Whether it is reading the reconstructed text or browsing pictures, using teachers' travel experiences as a narrative guide in the design of geography lessons helps to ensure that it is meaningful and interesting learning experiences of students.

Key words : Teachers' Travel Experience, Text, Academic interest
Student Number : 2015-21585